

부시 '애국법' 입시 연장안 서명

내달 3일까지...미 의회 시효연장 찬반 격론 예상 “정상제도 진입까지” “프라이버시권 침해” 팽팽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워싱턴=연합뉴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의회가 지난주 테러방지법인 이른바 '애국법'의 시한 무기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지난달 31일 애국법의 시한을 2월 3일까지 임시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아울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멕시코만 연안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위법안을 포함, 10여개 법안에 이날 서명했다.

트렌트 더퍼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시 대통령은 애국법의 1개월 연장안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면서 “2005년 12월 31일 시한이 만료되는 애국법이 정상제도에 진입해 효력이 계속 발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애국법의 시한 연장을 놓고 1월 중 재협상에 나설 예정이나 애국법의 미국인 프라이버시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찬반론자들간

시각차가 워낙 격론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미 의회는 애국법의 시한 종료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6개월연장안을 채택한 상원과, 이에 대한 반발로 1개월안을 채택한 하원 안을 놓고 절충한 끝에 지난 22일 1개월 연장안을 최종안으로 확정, 부시 대통령에게 송부했다.

'애국법'의 강력한 지지자인 제임스 쉐넬브레너 하원 법사위원장(공화·위스콘신)은 “1개월 연장안이 상원의 조속한 결단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 안은 백악관과 테니스 해스터트 하원 의장(공화·일리노이)의 지지를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휴회 중인 미 상원은 오는 18일, 하원은 26일에 각각 소집된다. 앞서 스콧 맥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애국법 시효 연장을 재승인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애국법 시한의 단기 연장은 수용할 수

▲애국법이란=9·11 직후 테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시민의 자유권을 제약할 수 있도록 새로 제정된 미국 법률. '애국자 법(Patriot Act)'이라고도 불리며 정식 명칭은 테러대책법(Anti-terrorism legislation)이다. 2001년 10월 26일, 대통령 부시가 서명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수사당국에 의한 도청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등 당국에 유례없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정부가 범죄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종교단체와 정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사당국은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시민을 구금할 수 있게 했다. ▲수사당국은 테러 혐의가 있으면 상당한 근거가 없이도 미국민의 서류나 소유물을 수색·압수할 수 있으며 ▲정부는 재판 없이 미국민을 무기한으로 구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칠은 간디가 감옥서 굶어죽기를 원했다

■ 1942~45년 英 내각회의 자료

“히틀러는 악의 축, 체포편 처형해야 나치 지도자 재판은 웃음거리 될 것”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총리를 맡아 전쟁을 지휘한 윈스턴 처칠은 나치 독일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가 체포될 경우 재판보다는 처형을 선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도 독립운동을 이끈 마하트마 간디는 감옥에 계속 가둬 죽도록 내버려 두고, 프랑스 레지스탕스 지도자인 드골 장군이 영국을 떠나지 하면 체포할 작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공개된 1942~1945년 영국 내각 회의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는 런던 남서부에 있는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자료에 따르면 처칠은 1942년 12월 내각회의에서 “히틀러는 악의 주축이다. 그가 우리 손에 들어오면 사형에 처할 것이 자를 심사숙고하라”고 주문했다.

1945년 4월 내각 회의에선 내무장관이던 허버드 모리스는 히틀러 등 나치 지도자들에게 ‘모의’ 재판을 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고 “사형에 처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냈으며 처칠은 이에 대해 히틀러에 대한 재판은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동의했다.

처칠은 또 간디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독일을 상대로 하는 전쟁에 영국 식민지배를 받고 있던 인도가 개입해선 안된다는 단식투쟁을 계속할 경우 감옥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길 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처칠은 드골을 “허황된 야망”을 가진 사람으로 보며 그가 영불간 신뢰할만한 관계를 수립하는 데 장애물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처칠은 이에 따라 독일이 프랑스를 침범한 직후인 1940년 영국으로 피신한 드골 장군이 1943년 3월 ‘자유 프랑스군’을 방문하도록 요청한 것을 거부했다. 드골은 영국측이 자신을 전쟁포로처럼 다루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처칠은 그러나 드골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통명하게” 말해야 하고 영국을 떠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그래도 프랑스 합대를 이용해서 영국을 떠나려 하면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처칠은 드골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당시 진행중이던 미국과 드골의 경쟁자인 지로 장군간 협상이 위협에 처할 것으로 우려,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러 전략적 동반자...협력·발전 모색” “양국 관계 발전 공전의 수준으로 향상”

후진타오-푸틴 '신년 덕담' 양국 우의 과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축전으로 덕담을 주고 받으며 우의를 과시했다.

1일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후진타오 주석은 신년인사를 담은 축전에서 올해와 내년 중국과 러시아가

변갈아 여는 '국가의 해'가 중·러 외교사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라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공을 이루자고 말했다.

후 주석은 이어 “중·러는 서로에게 있어 최대의 인접국이며 선린우호는 공동의 선택이라면서 전략적 동반자

로서 협력을 모색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양국 공동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도 후진타오 주석에게 보낸 축전을 통해 지난해 러·중 관계가 공전의 높은 수준으로 향상됐다고 말하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

계 발전이 세계의 다극화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올해 중국에서 거행되는 '러시아의 해' 행사는 양국 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中 '상하이 일 영사 직원 자살' 반격 나서나

“日 정부가 사건 왜곡 중국에 책임 떠넘겨” 비난

주일 중국대사관이 중국 상하이 주재 일본 총영사관 직원이 현지에서 자살한 사건에 대해 일본측이 담초합의를 어기고 사건을 왜곡되게 흘렸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나섰다.

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주일 중국 대사관은 지난해 12월 31일 홈페이지에 “일본측은 영사직원이 직무에 중압을 느껴 자살했다고 표명하고 유족

의 뜻에 따라 중국측에 사건을 공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성명은 중국측의 조사에 의해서 이 문제는 “중국 정부 당국자와 어떤 관계도 없음을 확인했으며 결과를 일본측에 설명했다”며 “일본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사건의 책임을 중국측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

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외무성 관계자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유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며 “중국측의 설명은 완전히 사실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일본 언론은 현지 총영사관과 일본 외무성 사이에 오가는 암호의 조합과 해석을 담당하는 '전신관'이었던 상하이 주재 일본 총영사관 직원이 지난해 5월 중국 기관원에 여 성관련 약점을 잡혀 기밀을 유출하라는 협박을 받다가 이를 시사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것으로 최근 보도해왔다.

일본 정부도 “중국측 공안당국 관계자에 의해 빈 조약상의 의무에 반하는 유감스러운 행위가 있었다”며 언론의 주장을 확인하면서 중국측에 대해 항의했고 중국측은 반박하는 등 공방이 오갔다.

한편 야마사키 다쿠 전 일본 자민당 부총재는 이날 11일부터 예정된 중국 방문을 포기하고 행선지를 베트남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야마사키 전 부총재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희망했으나 결국 일정을 잡지 못했다.

프랑스 에펠탑 '정초의 대치'



해마다 신년 맞이 거리집회가 과격한 소요로 돌변하곤 하는 프랑스 파리에 올 신년에도 차량방화등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에펠탑 아래 집결한 시위대가 술병을 던지자 폭동진압 경찰들이 대오를 갖추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007학년도 교원임용시험대비 선배형격이 입증되고 추천하는 교원임용강좌 전국랭킹 1위

곽내영교육학

거울방학특강! 패시형 선생 자차직강 개강 1월 7일 조기 마감 주의

관객없는 공부는 남비밀 뿐입니다. 곽내영선생과의 만남은 곧 '출제위원'과의 만남입니다.

매년 교원임용시험 최대 합격자를 배출한 전공강좌! 광주에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과목 | 전공 국어 | 전공 영어 | 전공 수학 | 일반 사회 | 공통 과학 | 전공 생물 | 전공 물리 | 과학 교육 | 전공 미술 | 전공 체육 |
|----|-----------------------|-----------|----------|-----------|------------------------|-----------|-----------|-----------|-----------|------------|
| 담당 | 최병해 마준용 | 송욱 | 임대성 | 김형수 | 장영민 교수팀 | 김치욱 | 장영민 | 장영민 | 김성희 | 김용호 조남중 |
| 개강 | 1월 8일(일) 1월 11일(수) | 1월 13일(화) | 1월 2일(월) | 1월 12일(목) | 1월 10일(화) 1월 12일(목) | 1월 11일(수) | 1월 10일(화) | 1월 23일(일) | 1월 12일(목) | 1월 13일(금) |

교원임용고시의 최정산! 곽내영고시학원 수강문의 : 062-529-0090 http://www.naeyoung.com 인터넷영상강의:여류뷰넷 http://www.eduview.net

2006년 공무원 시험대비 겨울방학 대특강

개강 1월 2일

접수방법: 전화접수(무통장입금), 방문접수

무통장 입금안내: 전화접수 후 무통장입금(실명입금) *농협(예금주:김중호) 계좌번호: 617-12-267634

행정직, 소방직, 고정직, 검찰직, 서무직, 전신직, 기술직

- 9급 이론종합반 강의: 개강 A반, 전향반 B반, 직장인 야간반

★ 12월 30일 이전 등록시 종합반 수강료 15%할인

교육행정직: - 인형 순환서 강의료 보조제도 연계 접근 할 수 있는 형태이고 자세한 학습관리 - 원근제 Up-to-date 학습관리 - 교육학의 대부 강연대 교수

사회복지직: - 전국 최강 사회복지학의 자존 신명명 교수님의 이론 강의 - 사회복지 및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범대

A 현대고시학원 전담여고 앞 222-6790 www.hgosl.net

1부: 12h 2006년 1학기 대학편입 2부: 12h5

★ 2006년 1월 180여개 대학 편입학 선별예강! ★

대학편입 FINAL COURSE

6주완성반

▶ 편입영어-이론완성반, 상위권대비반, 실전문제풀이반

▶ 교대편입 교육학 최종점검 문제풀이반 특설

김영편입학원 (구)도청앞 남도예술회관 옆 전화) 222-8088, 227-8088

합격을 1위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

공인중개사 본원 전국수석

광주고시학원 공인중개사·주책관리사 개강 1월 2일(월)

본·원·출·신 송은영님 96.7 점수로 축하합니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중 본원출신 300여명 합격!

www.gwangjugosi.com ☎ 227-8003

무등경찰학원이 씁니다.

ONE 이론반 (2개월완성) + ONE 단원별 문제풀이 (매일2시간) = 2개월완성 수강료 ₩300,000 교재무료(₩₩30,000) 문제풀이 특강무료

www.mdcop.co.kr 개강 1월 2일

cop md 무등경찰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